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센터 역할 강화해야”

광주시장애인재활협회 학술대회 24시간 돌봄 전국 확산 기여 평가 지자체 체계적 교육·예산지원 필요

광주에서 첫 발을 댄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시스템이 발전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원센터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자타해)에 초점을 맞추는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인의 돌봄의 책임을 지자체가 공동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주시장애인재활협회 주최로 지난 29일 광주 시의회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 현황 및 과제’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장애인 복지 전문가, 장애인 부모들은 광주시의 발달장애인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참여자들은 광주시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사업을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시도해 확산의 기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 지원 패러다임에도 변화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추후 안전한 실천 환경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안착 시키기 위해서는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 공통된 목소리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 돌봄 사업 현황 및 과제’의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미옥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광주시 융합 돌봄사업에 대해 SWOT (Strengths-강점, Weaknesses-약점, Opportunities-기회, Threats-위협)분석법으로 평가를 했다.

서비스 운영체계에서 ‘강점’으로는 조례에 근거한 사업으로 지자체 예산 지원을 통한 사업의 안전성이 꼽혔다. 하지만 ‘약점’으로는 조정기관의 역할 부재로 운영 효율성 및 통제력 약화와 서비스 전달 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훈련 및 비전 부족 등이 지적됐다. ‘기회’로는 정부서비스와 지역사회 내 융합 돌봄사업과 연계해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됐고, ‘위협’으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사회전반의 이해 부족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김 교수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지자체와 발달 센터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서비스 전달 인력 충원 및 고용 유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은진 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실장은 “광주시 돌봄 시스템으로 발달장애인 개별 맞춤형 계획을 수립해 장애인들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고, 가족 구성원의 삶을 지원할 수 있었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 실장은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포

준화 매뉴얼 구축, 체계적인 장애인 전이계획 수립, 종사자 양성 및 전문 교육 제도화, 현장 행동발달 지원 전문가 배치, 운영관련 자문단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애인 부모 대표로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유선 광주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최고 복지는 문제가 발생할 때 대처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방하는 것”이라면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관점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주무관청에 발달장애인 전문관 배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내 업무 전담팀 배치 ▲이용자들의 지역사회 진출 대책 수립 ▲사업 제공인력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사업 모니터링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정희경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종합토론에서 광주시 최중증 발달 장애인 융합 돌봄 사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직원 회생을 강요하는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컨트를 타워 역할을 하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이어 “서비스 기간 종료 이후 자립 생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탈시설 사업과 연계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이뤄야 한다”면서 “가족에 대한 이해와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도 빠뜨려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노고단 대피소’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지리산 국립공원, 17일부터 운영 재개... 객실 36석, 장애인 전용공간도



‘지리산 노고단 대피소’가 신축돼 17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지리산 국립공원 전남사무소는 “지리산 노고단 대피소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예약을 받아 오는 17일부터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고단 대피소의 총 36석(노고단실 16석, 반야봉실 20석)의 객실이 이용가능하다.

지리산 노고단 대피소는 지난 2018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지진 취약지대로 선정됐고, 철거 후 신축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2021년 3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기존 대피소를

허물고 같은 자리에 신축했다. 장애인 전용 공간(4인실·1동)도 신설했다.

▲노고단 대피소는 수용인원 104명이었으나 신설된 대피소 수용 인원은 36명으로 대폭 줄어 들었다.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 방지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여유 공간을 두고 칸막이 등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지리산 국립공원 전남사무소 관계자는 “새롭게 단장한 지리산 노고단 대피소는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등산객들이 편안하게 하룻밤을 묵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충장동 자원봉사캠프 ‘영양 듬뿍 찰밥 나눔’

광주시 동구 충장동 자원봉사캠프 관계자들이 충장동 돌봄 어르신들과 함께 충장로 마을사랑채에서 모여 ‘영양 듬뿍 찰밥 나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돌봄 어르신과 자원봉사캠프 회원들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 100인분에 달하는 찰밥을 만들고 포장해 건강상의 이유로 식사 해결이 어려운 1인 가구마다 방문·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광주시 동구제공)



북구, 광주 유일 ‘아동정책영향평가’ 우수기관 선정

광주시 북구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3년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령·계획·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지자체가 자체 분석해 정책 수립·시행에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 아동 중심의 정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최초 도입됐다.

아동친화 행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해 ▲적극성 ▲지속성 ▲충실성 ▲적절성 등 평가 지표 전반에서 두루 높은 점수를 얻은 것이 주요했다는 것이 북구의 분석이다.

북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찾아가는 마을놀터’ 프로그램은 아동에게 창의적인 참여 놀이 기회를 제공해 아동의 놀 권리를 대폭 증진시켰다고 호평받았다. ‘미래직업진로체험’ 사업의 적극적인 운영 등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

한 점도 우수사례로 꼽혔다고 평가했다.

북구는 전국 6개 지자체를 선정한 아동정책영향평가 우수기관에 포함됐고, 광주 자치구에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이 됐다고 전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성실한 수행과 아동권리 인식 증진을 위해 한 마음으로 똘똘 북구 1700여 공직자들 노력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아동 기본권리 등 아동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해 지역의 모든 아동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자유롭게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국립공원공단-KIA타이거즈 ‘무등산 쓰담산행’

환경보호 인식 확산 캠페인

국립공원공단이 프로야구단 KIA타이거즈와 환경보호 인식 확산 캠페인을 진행했다.

공단은 지난 30일 무등산국립공원 중심탐방지원센터 일대에서 국립공원 환경보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쓰담산행’ 캠페인을 진행했다.

쓰담산행 캠페인은 ‘쓰레기를 담는다’를 줄인말로, 탐방객과 산행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4월 국립공원공단과 KIA 타이거즈간 ‘무등산국립공원 보호 및 상호 협력’ 프로그램의 하나로 추진됐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선수단 등 100여명은 이날 중심탐방지원센터에서 중심사까지 약 1km 구간을 산행하며 쓰레기를 수거했다. 또 의류 재활용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헌 유니폼을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 전달했다. 유니폼은 양말 또는 장갑으로 재활용하는 업체에 의뢰해 취약계층에 기부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지역을 대표하고 사랑받는 프로야구단인 기아타이거즈에서 국립공원 환경보호와 친환경 탐방문화 인식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활동을 계기로 다른 지역의 국립공원에도 환경보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쿵!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쿵!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쿵!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지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